

III. 해외마케팅.투자정보 하이라이트

■ 하나씩 둘씩 떠나는 봉제업체들, 對연해주 제조업 투자 무엇이 문제인가?

□ 연해주 진출 우리나라 봉제업체들 현황

- 현재 극동러시아 연해주에 투자 진출한 우리나라 업체들은 모두 22개에 달하고 있음. 당초 우리나라 봉제업체들이 이곳에 진출한 배경에는 러시아가 對미국 섬유제품 논 귀터 지역이면서 인건비가 저렴하였기 때문이었는데 최근 이곳 봉제업체들이 하나씩 둘씩 문을 닫고 철수를 하고 있음.
- 현재 추세라면 금년도에 절반 이상의 업체들이 동남아 지역 등으로 철수 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업체들도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형편임.

□ 봉제업체들의 철수 배경

- 첫째, 현지 노동법이 노동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기업에 대하여는 불합리할 정도로 엄격하게 법규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물론 이러한 엄격한 법규 적용은 이른바 관리들의 뇌물요구의 온상이 되고 있음. 예를 들면, 봉제업의 경우 생산공정상으로 안전에 크게 문제가 안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정별 안전검사”라고 해서 수시로 관련 공무원들이 나와 아주 까다롭게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많은 비용을 업체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음.
- 또한 폐업신고를 내었을 경우에는 종업원들에게 평소 지급하던 수준의 봉급을 6개월간 더 지급해야 하는데 이 점도 해당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 또 한가지 예를 들면 출산휴가의 경우 1년 6개월을 주는 것이 원칙이고 아울러 출산 후에는 양육휴가라고 해서 추가로 1년 6개월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자 종업원들의 임신과 관련 총 3년을 휴가로 주게 되게끔 되어 있음. 물론 이 기간 동안에도 봉급은 원래 지급하던 수준으로 지급해야 함.
- 둘째, 연해주 지역에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처럼 근로자가 풍부하지 않을 뿐더러 최근에는 그나마 이들 근로자 숫자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음. 젊은이들이 모스크바를 비롯한 서부 러시아 지역으로 자꾸만 빠져 나가는데다 최근 러시아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일하기 보다는 요식업 등 이른바 서비스 업종으로 직업을 바꾸고 있어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근로자들도 아직도 과거 사회주의 시스템에 물들여져 있어 일에 대한 적극성도 없을 뿐더러 야근과 같은 업무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실정임.
- 셋째, 국내 판매보다는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음. 수출입에 관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있고 그나마도 갈수록 간소화 되기는커녕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제 시간에 공장에 입고되지 못하여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으며 제조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납기에 선적되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음.

- 넷째, 비자 연장제도도 아주 애를 먹이는 요인중의 하나임. 외국기업을 유치했으면 기업활동에 필요한 해당국 사람들에게 보다 긴 비자기간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비자연장을 간소화 시켜줘야 하는데 주어지는 비자기간이 짧은데다가 그것도 모스크바까지 가야 하는 등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비자연장 절차가 현지 활동하는 기업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
- 마지막으로 금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신관세법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신관세법에 따른 기존 관세유예제도의 관세환급제도로의 변경은 업체 규모에 따라 연간 50-100만불 규모의 자금동결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현행 부가세 환수제도가 납부기관(관세청)과 환급기관(세무서)의 상이함으로 인해 환급받기까지 상당기간 소요되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관세환급도 단기간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50-100만불에 이를 관세납부액 미환수금은 해당업체들에게 엄청난 자금 압박을 주고 있는 실정임.

□ 결 론

- 이곳에 진출한 우리나라 봉제업체들이 이와 같은 현지 노동력의 부족, 노동법의 경직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노동법을 무기로 한 관료들의 횡포, 비자 연장제도의 복잡성, 신관세환급제도로 인한 자금 압박 등으로 고전을 하면서 절반 이상이 이 지역을 떠나고 있는 것과 관련 봉제업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우리나라 업체들의 對연해주 제조업 투자진출은 신중을 기할 것이 요청되고 있음.
- 끝으로 이와 같은 투자진출과 관련한 어려운 여건 타개를 위하여 주정부 당국과 이곳 공관, 무역관 및 업체들이 계속 협의를 하여 왔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이는 오랫동안의 사회주의 타성과 투자유치 마인드의 결핍 그리고 관료들의 경직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문의처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고지찬 jichanko@hotmail.com)